

『蘭花夢奇傳』의 여성영웅과 비극성

김 명 신*

1. 들어가는 말

『蘭花夢奇傳』은 68회로 烟波散人の 序文을 보면 吟梅山人¹⁾이 지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작자 吟梅山人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증되어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光緒 31년에 쓴 烟波散人の 序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구조는 『紅樓夢』과 비슷하다고 평가되며²⁾ 내용은 비교적 영웅 전기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성영웅 松寶珠가 납장을 하고 苗族의 난을 평정하며 許文卿과 혼인하지만 남편의 시기심에 희생되며 비극적으로 죽는다는 내

* 한양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 1) 吟梅山人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만 학자 龔鵬程은 작자가 云吟梅山人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잘못 안 것으로 보인다. 孫楷第와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에서는 모두 작자가 吟梅山人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龔鵬程이 말한 『菊花夢奇傳』이 다른 책이 아니라면 출판 상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 2) 『紅樓夢』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제1회부터 『홍루몽』의 남주인공 賈寶玉의 말이 인용되어 있고 등장인물도 『홍루몽』의 인물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단편적인 것이고 전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애정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聞今, 「一部頗具特色的『紅樓夢』仿書—『蘭花夢奇傳』校點後記」, 『紅樓夢學刊』, 1990. 2. 334쪽 참조.

용이 특징적이다.

『蘭花夢奇傳』은 才子佳人小說, 人情小說 『紅樓夢』과 비교되고 있고 俠義愛情小說로 규정된 경우가 있지만³⁾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이 작품의 등장인물 가운데에 여주인공 松寶珠가 비극적으로 죽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탐구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와 여성영웅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품의 비극적 요소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작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난 뒤에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들과 작품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작품의 내용과 등장인물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2. 작품의 개요

松學士는 딸 寶林과 寶珠와 아들 松筠과 松蕃을 두었다. 보림과 보주는 모두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송학사가 손에 쥔 구슬처럼 사랑했다. 보주는 어려서부터 남장을 하고 지냈는데 집안의 하인, 하녀들과 친구처럼 사이가 좋았으며 대부분 그녀가 여자인 줄을 몰랐다. 보림은 사촌 오빠 李文翰과 어렸을 때 정혼했으며, 14살이 되자 공부를 그만 두고 어머니를 대신하

3) 『蘭花夢奇傳』을 才子佳人小說로 평가하는 경우는 남녀 주인공이 처음에 詩를 통해서 애정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일반 재자가인소설과는 달리 계속해서 詩作이 나타나지 않으며 大團圓의 결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이 『홍루몽』의 모방작이라는 평가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작품 서두에 賈寶玉의 말이 인용되어 있고 등장인물 중에 松寶林이 『홍루몽』의 王熙鳳의 성격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대부분의 애정소설에는 강인한 여성과 유약한 여성이 모두 등장하고 있고 애정소설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蘭花夢奇傳』은 영웅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俠義愛情小說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면은 여성영웅의 활약과 애정고사가 함께 서술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타당한 분류라고 하겠다.

여 집안일을 관리했는데, 집안을 엄격하게 다스려서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복종했다. 보주와 어린 두 동생도 모두 경외했다. 보주가 13살 때 송학사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여 보주의 이름을 俊, 호를 秀卿이라 지어 주고 이문한과 함께 鄉試를 보게 했는데 그대로 經魁(鄉試에서 五經 각 부분의 수석 합격자)로 합격했다. 보주가 14살 때 송학사는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다. 그때 송균과 송번은 나이가 어려서 집안에는 바깥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보림은 보주에게 계속 남장을 하게 하여 두 자매가 집안과 집밖의 일을 맡아서 처리했다.

또 會試를 보게 되자, 李文翰과 그의 친구 許翰章이 와서 보주와 함께 시험 보러 가자고 약속했다. 보주는 연달아 합격하여 探花(최고 시험인 殿試에서 3등으로 합격하여 進士가 된 사람)로 급제했으며, 허한장은 狀元(殿試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으로 급제했고 이문한도 二甲第一(殿試에서 제2급 중 1등으로 합격한 사람)로 급제했다. 보주는 조정에서 황제를 대면했는데,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그녀를 翰林에 제수했다. 보주는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임명되었지만, 자신의 결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늘 울적했다.

먼 친척인 依仁이 찾아와서 억지로 송보주, 이문한, 허한장을 기생집에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셨는데, 거기서 재상의 아들인 劉三公子 劉灌을 우연히 만났다. 남자들과 함께 섞여 있다 보니 보주는 春心이 점점 동하여 장원 허한장에게 마음을 두게 되었다. 보주는 집에 돌아온 뒤 자신의 마음을 시로 썼는데, 보림이 보고는 보주가 바깥에서 망신을 당할까 걱정하며 그 자리에서 그녀를 호되게 책망했다.

유삼공자는 보주가 남자치고는 너무 예쁜 것을 보고 그녀를 여자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진실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는 교활한 하인 柏忠과 함께 계획을 세워 보주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약속해서 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보주에게 그 계획이 간파 당하여 도리어 유삼공자가 취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유삼공자는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워 그녀의 비밀을 캐내려 했지만 보주가 지혜롭게 피해 나갔다. 결국 백충 등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지만 보주는 더욱 우울해져서 마침내 병이 들었다. 張山人은 병을 치료하면서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과 그녀

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보주와 허한장을 맺어 주려고 했다. 허한장은 결국 보주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조했다.

송보주는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하여 평판이 매우 좋았다. 당시 해안 변경이 불안하여 苗族이 난을 일으키자, 보주는 황제에게 난을 평정할 책략을 바쳤다. 황제는 보주를 兵部侍郎經略大臣에 봉하여 해안 변경의 軍務를 총지휘하게 했다. 각 성의 문무 관원들이 모두 보주의 통제를 받았다. 보주는 군대 10만을 통솔하여 臺灣의 苗族 난을 평정하러 갔다. 松寶珠는 용병술에 뛰어나 몇 차례의 접전 끝에 결국 全勝을 거두었다. 승전보를 아뢰고 개선하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정벌에 나섰던 將兵들에게 모두 상을 내렸다. 보주는 마침내 그 기회를 틈타 남장 여자로서 군주를 속인 죄를 사해 달라고 황제에게 상주했다. 황제는 어지를 내려 보주에게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게 하고 許狀元和 결혼하라고 명했다.

이 때 남동생들이 장성했으므로 寶林도 李文翰에게 시집갔다. 許翰章은 처음에 松寶珠를 사랑했지만 점점 그녀의 재능을 시기하고 나중에는 그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었다. 송보주는 늘 우울해 하다가 결국 불행하게 자식도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제서야 허한장은 후회하면서 송보주에게 祭文을 올리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은 여성영웅 松寶珠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고 하겠다. 작품의 내용은 송보주의 탄생→남장→시련과 위기→활약→복귀(신분 탄로)→혼인→남녀대립→비극적 죽음 등의 순차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일반적인 여성영웅의 일대기와는 달리 여성영웅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데, 남편 許文卿에게 매질을 당한 이후에 허무하게 죽는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드러내고 있다⁴⁾.

4) 일반적인 여성영웅소설의 구조를 보면, 여성영웅은 시련을 겪고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松寶珠는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고 비극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영웅과는 다른 역정을 거치게 되므로 비교적 독특하다고 평가되며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3. 작품의 여성영웅들

1) 핍박받는 여성영웅

『蘭花夢奇傳』 가운데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성영웅은 松寶珠이다. 그녀는 국가와 민족을 구한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부친 松學士의 명에 의해 남장을 하고 아들처럼 키워졌지만 보기에 대단히 연약한 여자로 보인다. 그녀의 용모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松寶珠는 부드럽고 아름다웠는데 호리호리한 몸매, 가름한 얼굴, 봄 산 처럼 가로누운 눈썹, 맑은 눈은 정을 머금고 보조개가 두 뺨에 패였다. 버들 같은 허리에 연꽃 같은 발걸음은 마치 해당화에 비 내린 듯하고 버드나무가 바람을 맞이하는 듯하구나.

(寶珠是柔媚一路, 瘦瘦的身子, 長長的臉長, 春山橫黛, 秋水含情, 杏靨桃腮, 柳腰蓮步, 猶如海棠帶雨, 楊柳迎風. 제1회)

이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松寶珠지만 그녀의 성품은 “총명하나 드러내지 않고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해도 놀라지 않으며(聰明不露, 寵辱無驚),” 대단히 임기응변에 능하였다. 松寶珠는 蘭花仙女가 속세에 하강한 것으로 그녀의 재능과 능력이 천부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남자들과 당당히 겨루어 과거 급제하며 벼슬길에 오른다. 그러다가 苗族이 난을 일으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자 松寶珠는 난을 평정할 책략을 황제에게 바친다. 황제는 그녀를 兵部侍郎經略大臣으로 봉하여 군무를 총지휘하게 한다. 松寶珠는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용병술이 대단히 뛰어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녀는 백성의 고난을 구제하여 커다란 의미의 협의를 시행한 大俠의 면모를 보이는 여성영웅이다⁵⁾.

劉斌이 苗族의 장수 修奇角과 싸우다가 패하여 돌아오자 松寶珠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5)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0. 6. 113-114쪽 참조.

松寶珠가 화를 내며 말했다. “오늘 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감히 나의 예기를 잃게 만들다니!” 그녀는 검을 뽑아 劉斌을 참하려고 했다. 장수들이 말 앞에 꿇어 앉아 애걸하였지만 송보주는 끝내 들으려 하지 않았다. 松筠이 또 패하여 돌아오자 황급히 보검을 거두며 말했다. “劉總官은 나라의 동량인데 내가 어찌 차마 죽일 수 있으리오? 그대와 서로 재미삼아 놀면서 담량이 어떠한지 시험해봤을 따름이오.” 송보주는 말을 마치고 나서 검을 던지고 크게 웃었는데, 그 위엄을 갖춘 모습은 수리부엉이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아 장수들이 모두 멍하니 쳐다보았다.

(寶珠怒道: “今日功已垂成, 爾敢失吾銳氣!” 拔劍欲斬劉斌. 衆將跪下馬前苦求, 寶珠總不肯聽. 瞥見松筠又敗下來, 連忙收住寶劍道: “劉總戎國家棟梁, 本帥安忍殺之? 不過與之相戲, 以試其膽量何如耳.” 說罷擲劍大笑, 烈烈如鶻鳴, 衆將都看呆了. 제45회)

松寶珠는 전쟁터에서 전혀 유약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며 상당히 결단력이 있고 위엄에 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여성영웅의 호방함이 매우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松寶珠는 애정 면에서는 영웅성과 구별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許文卿은 그녀가 여자임을 알아채고 구애하여 승낙을 받는다. 그런데 그는 그녀와 약혼하자마자 전형적인 남성주의적 태도를 나타내며 그녀를 폄박하여 그녀는 어느새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다음은 허문경이 그녀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이다.

許文卿이 말했다. “너는 본래의 모습을 잊었느냐? 남자를 품안에 안고 너무나 체면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내 성질에 따르면 너를 몇 번은 때려야 성질이 풀리겠다!” 松寶珠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욕을 해댔지만 그녀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송보주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桂兄과 潘兄이 저를 밀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文卿道: “你忘了本來面目了? 你把個男人撲在懷裏, 太不顧體面! 依我的性兒, 就要打你幾下, 才出氣呢!…” 罵得寶珠粉面通紅, 不敢回答. … 寶珠羞澀澀的道: “桂兄他們推把我的, 教我也無法.” 제20회)

이처럼 許文卿은 결혼하기 전부터 그녀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며 폄박하고 있는데, 松寶珠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녀는 전쟁을 겪은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를 느껴 許文卿과 빨리 결혼하려는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나 許文卿의 강요로 서둘러 결혼하게 되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許文卿은 처음에 松寶珠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신이 그녀의 재능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매우 박대하게 된다⁶⁾. 송보주는 이미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녀가 하녀 紫雲에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松寶珠가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비록 편안하고 부유하며 존귀하고 영예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내 운명이 가장 괴로운지 몰라. 14살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만들어 그만둘 수 없게 했고 몇 년 내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는지 모른다구! 옛 친구의 정이 귀중하고 해서 평생을 의탁하려고 했는데 누가 알았겠어? 좋은 일은 마가 끼기 쉽고, 처음의 마음이 이미 변했음을…자세히 생각해 보니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 그녀는 말을 하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눈물을 줄줄 흘렸다.

(寶珠歎道：“人看我雖然安富尊榮，不知我的命最苦惱不過，自從十四歲，去了父親，把我嬌柔造作，弄得我欲罷不能，幾年之內，不知受了多少風波！只說故人情重，堪托終身，誰知好事未諧，初心已變，…細想起來，還不知如何結局!” 說著，淚如雨下。 제38회)

松寶珠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늘 우울해했는데 어느 날 許文卿에게 구타를 당했다가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⁷⁾. 이처럼 松寶珠는 국난을 극복하여

6) 許文卿은 그녀의 재능에 대해 질투했고 家父長의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고 구타하는 폭력적인 남편이 된다. 松寶珠와 동급생이었을 때는 서로 평등한 관계였지만 그녀가 자신의 부인이 되자 항상 복종해야 하는 하녀처럼 취급했던 것이다.

7) 고전소설 중에서 『蘭花夢奇傳』은 특이하게도 비극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작자 吟梅山人은 松寶珠의 뛰어난 지혜와 담력을 통하여 진보적인 평등의식을

대의를 실행하였지만 자신의 애정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었고 폄박받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여성영웅이었다.

松寶珠는 남장과 여장을 번갈아 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그녀가 남장을 했을 적에는 대담성과 용맹성을 드러내고 있고 여장을 했을 때는 감성과 섬세성을 표출하고 있어 복잡하고 이중적인 그녀의 심리가 미묘하게 묘사되어 있다⁸⁾. 따라서 송보주는 당시 여성의 신분으로는 재능과 영웅성을 펼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안고 있었던 폄박받는 여성영웅인 것이다.

2) 陰助型的 여성영웅

작품 중에서는 松寶林을 捧劍仙姬⁹⁾의 화신으로 처리하여 여성영웅의 출중함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대표적 여성영웅은 松寶珠지만 그녀가 성격에 있어서 유약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하여 그녀의 언니 松寶林은 그야말로 여성영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松寶林은 송보주와 비교하여 상당히 강단이 있고 강인한 성격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녀의 외모와 성격을 묘사한 부분이다.

나타내고 있고 清末 시민계층의 봉건예교에 대한 비판과 도전을 표현하고 있다. 비록 작자는 松寶珠가 蘭花仙女의 하강으로 세속의 원한을 해소하고 승천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극적 정서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다.

- 8) 松寶珠는 여성으로서 남성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그녀의 자아는 여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許文卿과 결혼하여 허문경의 아내가 되자 공손한 여성적인 면이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허문경은 자신보다 뛰어난 그녀의 재능을 시기하고 포용할 너그러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없었다고 하겠다. 金慧子, 『『洪桂月傳』與『蘭花夢奇傳』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10. 3. 60쪽 참조.
- 9) ‘捧劍仙姬’라는 명칭은 언뜻 생각하기에 松寶珠에게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松寶林의 성격을 따져보면 그녀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인 것이다. 송보림이 검과 같이 날카롭고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송보림의 성격은 『紅樓夢』의 王熙鳳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林綠峯, 『『蘭花夢』中女性形象及女性意識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論文, 2010. 3. 21쪽 참조.

松寶林은 또한 그렇지 않았는데 꽃과 달 같은 용모에 허리는 가늘고 키가 커서 기뻐할 때도, 화낼 때도 아름답고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내는 것 같기도 하며…봉황 같은 눈에는 위엄을 머금고 정을 가지고 있다. 성품은 대단히 화끈하고 어릴 때부터 순진해서…용감하게 행동하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말을 꺼내면 시원스럽고 일처리에 있어서 강직하여 집안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나이든 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보면 고분고분하며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 그녀는 일처리와 이야기에 있어서도 각 방면에 사람들을 감복하게 하여 사람들도 감히 그녀를 속이지 못하고 그녀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다. 비록 어린 여자애지만 노련하고 나이든 사람보다 백배나 숙련되었다.…오히려 松學士가 살아계실 때보다도 일처리에 있어서 두서가 있었다.

(寶林則又不然，生得花容月貌，腰細身長，宜喜宜嗔，似羞似怒，…鳳眼含威而有情，性氣燥烈異常，生小嬌癡已慣，且好的是潔淨，美的是風流，敢作敢爲，有才有智，出言爽快，作事剛方，家內人怕他，自不必說，就是各業的老年管事，見他也是服服貼貼，不敢仰視，他行事說話，也處處服人，人亦不敢弄鬼欺他，就欺他亦欺不過去，雖是個小女孩子，比曆練老到的人，還要精明百倍呢!…倒比松公在日，反有些頭緒起來. 제1회)

이처럼 松寶林은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松寶珠와는 달리 강인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별되고 있다. 송보림은 주로 집안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깥일을 보는 송보주가 오히려 유약성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점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松寶林은 동생들을 관리할 적에도 매우 엄격한 태도를 나타낸다. 남동생 松筠이 依仁의 꼬임에 넘어가 밖에서 놀고 있음을 알게 되자 죄인을 심문하는 것처럼 훈계하여 송보주조차도 매우 두려워서 떨게 만든다. 다음은 송보림이 남동생 송균을 훈계하는 장면이다.

松寶珠가 저택으로 돌아와 문안으로 들어갔다. 안쪽 회계장부실이 휘황찬란하게 등이 켜져 있어서 다시 문 앞으로 가서 봤더니 양쪽에 허녀들

이 손에 채찍을 들고 서 있었다. 松寶林은 아름다운 눈을 둥그렇게 크게 뜨고 긴 눈썹을 곤두세우며 사나운 표정으로 중간에 앉아 있었다. 松筠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두 줄기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처량하게 땅바닥에 꿇어 앉아 있었다. 원래 송군이 며칠 동안 依仁의 꼬임에 넘어가 놀러 다녔는데 보림이 알게 되어 마침 문초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보주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 감히 더 묻지도 못하고 참견하지도 못했으며 들어와서 언니라고 소리쳤을 따름이었다. 보림이 말했다 “어째서 이제야 돌아온 것이냐?” 보주는 얼굴이 흙빛처럼 되어 대답하지 못했다.

(寶珠回府, 進了宅門, 見內賬房里燈燭輝煌, 再到房門首一望, 兩旁丫環仆婦, 手中執著家法, 排列兩行, 寶林俊眼圓睜, 長眉倒豎, 惡恨恨坐在中間, 松筠一言不發, 兩淚交流, 慘淒淒跪在地下. 原來松筠連日被依仁勾引在外頑耍, 寶林知道了, 正在問口供呢. 寶珠看見, 嚇得心驚膽碎, 又不敢多問, 更不敢插口, 只得進來叫了一聲姐姐. 寶林道: “怎麼這時候才回來呢?” 寶珠面如土色, 回答不來. 제10 회)

이처럼 松寶林은 남동생을 훈계할 적에 위엄을 갖춘 만언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¹⁰⁾. 그녀는 만딸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행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은 가족들과 하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권위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松寶林은 사회적으로 松寶珠처럼 科擧를 보거나 남장을 하여 전쟁에 나가는 일은 전혀 없지만 집안일을 단속하고 전반적인 일처리에 있어서 지도자와 똑같은 자질을 드러내고 있어 송보주와는 또 다른 陰助型의 여성영웅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¹¹⁾. 송보림은 許文卿이 전쟁에서 한심하게 행동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 10) 松寶林의 이러한 태도와 성격은 확실히 『紅樓夢』의 등장인물 王熙鳳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으나 왕희봉처럼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투와는 상당히 다르다.
 11) ‘陰助型 여성영웅’은 기존의 한국 여성영웅소설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이다. 朴氏 부인, 黃夫人과 같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집안에서 내조하며 국난을 극복하는 여성영웅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다. 전용문, 『한국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학교출판부, 1996. 36-38쪽 참조.

松寶林이 냉소하며 말했다. “천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지 않으면 남풍이 동풍이 압도하지요. 사람이 천한 것이고 하물며 남자는 더욱이 물건이 아니니 체면을 좀 세워주면 납득하게 되지요.” 李墨卿이 말했다. “너무 날카롭구려. 설마 당신이 나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寶林冷笑道: “天下事是這樣的, 不是東風壓了西風, 就是西風壓了東風. 人是賤的, 況男人更不是東西, 給一點臉就象意了.” 墨卿道: “好利害, 怪道你來壓我呢!” 제57회)

이처럼 松寶林은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뱉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남편 李墨卿도 압도당할 정도이다. 그녀의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온 집안을 다스리는 여성영웅적인 기질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5. 작품의 비극성과 그 의미

작품의 비극성을 논하기에 앞서 비극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규정짓고 정의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대체 비극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쾌찬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의 장식은 작품의 상이한 제부분에 따로 따로 삽입된다.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¹²⁾

이처럼 비극은 독자들에게 감성을 자극하고 여운을 길게 남기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작품에 대한 감상을 완성한다. 따라서 소설작품의 비극적 결말

12) Aristotle,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1977. 57쪽 참조.

은 독자들에게 아쉬움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후속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심리를 자극한다¹³⁾고 하겠다.

『蘭花夢奇傳』에서 여주인공 松寶珠는 가정, 사회, 시대적으로 비극적인 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에서 작품에 나타난 그녀의 비극적 상황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家庭의 비극

『蘭花夢奇傳』은 여성영웅 松寶珠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지만 의외로 비극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송보주는 자발적으로 男裝¹⁴⁾을 한 것이 아니고 부친 松學士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된 것이었으며¹⁵⁾ 부친의 죽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며 지내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영웅성을 드러낸 것은 환경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松寶珠는 가부장제도에 순응하고 통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 기존의 질서를 위반하는 삶을 살다가 스스로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며 일반적인 여성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남편 許文卿이 그녀의 재능에 질투하여 그녀를 괴롭히고 매질하지만 송보주는 전혀 반항하지 않고 남편에게 굴종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그녀가 국가와

13) 비극적 결말을 가진 작품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작품은 『紅樓夢』을 들 수 있다. 清代 대표적 人情小說 『홍루몽』은 남녀 주인공이 이별하고 비극적으로 결말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편의 속작들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자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기를 바라는 심리를 파악한 『홍루몽』 속작의 작가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14) 남장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자 출로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공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러한 기회가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 남장을 하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남장은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15) 松寶珠의 비극은 그녀가 남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가 남장을 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고 松學士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해 영똥하게도 그녀를 남장시켜 키우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학사는 송보주를 아들로 잘못 알았다가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아들로 속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송보주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기도 했지만 한편 불행을 안고 살게 되었던 것이다. 林綠峯, 상계논문, 17쪽 참조.

민족을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를 이끌어낸 여성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녀가 자신에게 던져진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다¹⁶⁾.

松寶珠는 처음에 許文卿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에 대한 연정시를 쓰기도 하였다. 許文卿도 초반에는 그녀에 대해 애정을 품고 있었으며 그녀의 애정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松寶珠가 여자임을 알고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결혼 약속을 받아 낸다. 그러나 그는 초기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松寶珠의 애정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녀의 재능을 시기하고 구타를 일삼는 폭력 남편으로 변하고 있다.

許文卿은 松寶珠와 크게 언쟁을 벌이며 그릇 뚜껑과 차 쟁반을 들어 던졌다. 송보주는 본래 몸이 가벼워서 연꽃과 같은 발을 옆으로 움직이니 빛나가게 되었지만 이미 눈물은 흘러 멈추지 않았다. 허문경이 말했다. “이년, 오늘 진실로 네가 도망갈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너의 좋은 꼴을 봐야겠다.” 송보주가 숨을 헐떡이다가 울면서 말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요? 그 애가 당신을 때린 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나를 찾아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옛 말에 ‘집에서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문을 나서면 남편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찌면 이렇게 무정하고 의리가 없나요! …” 그녀는 말하고 나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文卿同寶珠大鬧，將個蓋碗連茶盤劈面打去，寶珠本來身體輕盈，金蓮一側，讓了過去，已是流淚不止。文卿道：“奴才，諒你今天已跑不了，我定要你的好看。”寶珠氣急，哭道：“這是那裡說起？他打了你，干我什麼閒事，只管來尋事我。從前說‘在家靠父母，出門靠丈夫’，你那裡這般無情無義! …”說罷，痛哭起來。 제59회)

16) 松寶珠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남성으로의 삶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녀가 여장을 했을 때는 섬세한 여성성을 드러냈고 남장을 했을 때는 호방한 남성성을 드러냈다. 또한 작가는 송보주를 여성과 남성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물로 형상화하고자 했지만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金慧子, 상계논문, 51쪽 참조.

그는 松寶珠에 대한 애정이 너무 지나쳤으며 그녀보다 열등하다는 자각의 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許文卿은 清代 俠義愛情小說 중에서 비교적 특이한 유형으로 여주인공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악역이 되고 있다. 그는 松寶珠의 임종에 가까워져야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 許文卿은 열정적인 모습에서 냉담한 태도로 바뀌는 기이한 애정 형태를 나타낸다.

한편 松寶珠는 현실 사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남편 許文卿의 이기심과 폭력을 야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허문경은 처음에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그녀에게 말로써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송보주의 시녀에 대한 매질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자 허문경은 마침내 송보주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송보주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¹⁷⁾. 허문경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했어야 하지만 송보주는 유순하고 나약한 일반적인 규수와 마찬가지로 허문경을 전혀 제지하지도 만류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송보주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사실이고 달리 변화될 수도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다만 작품 가운데에서 그녀가 蘭花仙女의 화신으로 다시 자신의 천상 세계로 회귀한 것으로 설정하여 비극적인 정서를 약간은 감소시키고 있다.

2) 사회제도로 인한 비극

松寶珠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봉건사회였고 여성은 아름답지만 재능이 없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발에는 전족을 하고 살아야만 했다. 송보주도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 맞추어 하녀 紫雲의 의견대로 전족을 하고 있다. 다음은 자운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아가씨는 올해 나이가 적지 않으시고 비록 擧人에 합격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잎이 떨어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으리, 마님은 모두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눈앞의 번영만을 도모하시고

17) 金慧子, 상계논문, 89쪽 참조.

아가씨의 이후 혼인대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큰 아가씨와 같은 경우는 지금 李墨卿 나오리와 혼인을 결정하고 예물을 보내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아가씨는 직접 고민을 말하기 쉽지 않으니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전족을 잘 해놓아야지 후에 개착을 하려고 한다 해도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2년이 지나게 되면 발이 가지런하게 되어 애석하게도 전족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小姐今年歲數不小, 雖說中了舉人, 究竟有個葉落歸根. 老爺, 太太俱不想到此, 只圖眼前熱鬧, 不顧小姐日後終身. 就如大小姐, 現在李少爺結親下禮, 何等風光! 小姐又不好自說心事, 倚我看來, 不如先將腳裹好, 日後要改妝, 也就容易. 不然, 再過兩年, 一雙整腳, 就是吃虧, 也裹不下來. 제1회)

이처럼 자운의 의견은 松寶珠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녀는 하녀 紫雲이 제시한 의견을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여성 신분으로 돌아간 뒤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는 규방 처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녀가 남장을 하고 있을 때는 호방한 남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여성 신분으로서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녀 紫雲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녀의 조언을 듣기도 했던 것이다.

松寶珠가 자신의 결혼을 우려한 것은 계속 남장하며 남성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첩 소생이었기에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一夫多妻라는 사회제도로 인한 피해이기도 했다. 松學士가 그녀의 남장을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송보주에게는 그녀를 돌봐줄 집안배경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결국 송보주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불이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졌다고 하겠다.

3) 시대적 상황이 일으킨 비극

松寶珠는 여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장을 하여 자신의 재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비밀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許公, 李公과 함께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린다. 황제는 그제서야 그녀가 여자임을 알게 되고 다음과 같은 성지를 내린다.

조정에서 신하를 등용하는 것은 충심으로 보답하라는 것이요, 조정을 위해 힘을 쓴다면 나의 賢臣이니 남녀를 구분할 까닭이 어디 있으리오! 평소에 정사에 힘쓰고 전란을 평정한 공로가 있는데 짐이 어찌 그 죄를 묻겠는가? 죄를 묻기는커녕 벼슬도 거두지 않을 것이다. 伯爵 작위는 許文卿에게 내릴 것이고 輕車都尉는 松筠에게 하사할 것이니 두 가족이 모두 그대로 인해 가문이 빛날 것이며 세습하게 될 것이다. 짐은 그대를 양딸로 삼아 升平公主로 봉할 것을 명하노라.

(朝廷用人, 不過要忠心報國, 既能爲朝廷出力, 就是朕的賢臣, 又何分什麼男女? 念你平昔居官, 也還能事, 又有平南的大功, 朕亦何忍罪你? 就是官爵, 也不消納還, 伯爵賞給許翰章, 輕車都尉賞賜給松筠, 教他兩家都沾你的光, 得個世襲. 我說認你做個繼女, 封你爲升平公主. 제50회)

황제는 자신을 기만한 松寶珠에게 결코 처벌을 내리지 않으며 오히려 升平公主로 봉하는 성지를 내리고 있다. 그녀로 인해 松氏 가문과 許氏 가문은 영광스러운 작위를 받게 되었으니 송보주는 대단한 대접을 받아야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송보주는 왜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요절해야만 했을까? 그야말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의 비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송보주의 남편이 된 許文卿은 본래 학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다¹⁸⁾. 그런데 그는 부인 송보주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18) 許文卿은 이미 殿試에서 狀元으로 급제했었는데, 이 점은 그가 학문에 있어서 상당히 재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용모와 학식은 제1회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하루는 이문헌이 같은 해 과거 급제생과 함께 왔다. 그는 성이 許氏, 이름은

자신보다 점점 훌륭해지자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심지어 허문경은 송보주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조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허문경의 염려는 그녀에 대한 콤플렉스를 나타낸 것이다¹⁹⁾.

봉건 왕조 시대에는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 낼 공간도 없었고 여성은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었던 세상이었다. 작가가 묘사한 松寶珠가 살던 세상도 왕조 시대이므로 남성이 모든 것을 재단하고 처리했다. 그런데 여성인 송보주가 국난을 극복하고 백성을 구제한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성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했다²⁰⁾. 또한 그녀가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적 행위는 許文卿이나 일반 남성에게는 치욕적인 일이기도 했으므로 그녀가 늙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송보주는 그 시대의 모순을 안은 채 비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중국 고전소설에서 비극으로 완결된 작품들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大團圓의 결말을 지향하고 있다. 清代에 와서야 비극적인 내용을 가진 『紅樓夢』이 창작되고 유행하게 되었다. 『蘭花夢奇傳』도 비극적인 정서

翰章, 호는 文卿인데, 亞元 급제생이었다. 그의 생김새를 보면 풍류가 뛰어나고 고귀하고 평범하지 않으며 치아는 하얗고 입술을 붉었으며 생김새가 맑고 진중하여 潘安과 宋玉이 환생한 것 같았다. 게다가 그가 가진 才學을 논하자면 재능이 비범하고 책을 널리 읽어 학식이 풍부했다(一日, 李文翰同一個年家之子到來, 這人姓 許名翰章, 號文卿, 是新科亞元, 生得風流出眾, 矜貴不凡, 齒白唇紅, 神清骨重, 好比潘安再世, 宋玉重生. 再論胸中才學, 竟是才高八鬥, 學富五車).”

19) 許文卿은 科擧에 급제하였고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갖고 닦는 데 힘쓰지 않았고 송보주의 천부적인 능력에 따를 수 없었기에 절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詩作에 있어서도, 兵法에 있어서도 허문경은 그녀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콤플렉스는 점점 더 커져 갔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그는 당시 전형적인 남성주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20) 서양의 잔 다르크(Joan of Arc) 역시 나라의 고난을 구제했지만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고 말았던 것처럼 여성이 남성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경원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은 살아남기 힘들었기에 松寶珠의 형상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편협한 남성주의 사회에 의해 희생이 된 여성영웅인 것이다. 于平, 『網未破 魚先死—漫談『蘭花夢奇傳』的悲劇性』, 『明清小說研究』, 1989. 2. 182쪽, 林綠峯, 상계논문, 17쪽 참조.

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결국 松寶珠의 환생과 관련하여 본다면 완전한 비극은 아니다²¹⁾. 이러한 점은 동양적인 정서가 비극을 좋아하지 않고 희극을 좋아하는 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蘭花夢奇傳』의 비극은 서양의 비극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비록 작품 전반에 비극적인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결국은 희극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비극이다²²⁾. 이러한 비극 형태는 작가 의식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으로 결국 작가가 남성 위주의 사회 관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6. 나오는 말

『蘭花夢奇傳』은 여성영웅 松寶珠의 일대기를 서술한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여성영웅은 송보주만이 아니고 그녀의 언니 松寶林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송보주는 그녀의 영웅성을 남장을 통해 바깥에서 행위로써 나타내고 있지만 송보림은 강인한 성품으로 가지고 집안일을 다스리고 송보주를 더욱 채찍질하여 매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송보림은 밖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송보주가 무서워할 정도로 집안을 단속하고 남동생 松筠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맏언니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는 송보주만을 여성영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송보림 역시 집안을 이끄는 우리

21) 이 작품은 文康의 『兒女英雄傳』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松寶珠이라는 인물이 영웅성과 함께 여성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녀영웅전』의 何玉鳳은 행복한 결말을 가지지만 송보주는 그와는 달리 비극적 죽음으로 끝난다. 이러한 점을 보면 작가가 새로운 구도로 작품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송보주가 劉灌의 함정을 빠져 나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는 코믹한 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비극적인 가운데 희극적인 면을 배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王穎, 「對“英雄兒女”模式的翻案—論『蘭花夢奇傳』的混類現象和文本對話」, 『海南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6. 5. 56쪽 참조.

22) 송보주의 죽음은 因果應報의인 관점으로 보면 비극적인 분위기가 해소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작가가 文字獄을 피하려 하여 이렇게 결말을 맺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견강부회한 관점이라 생각된다. 聞今, 상계논말, 338쪽 참조.

나라의 朴氏 부인과 비슷한 陰助型의 여성영웅이라 볼 수 있겠다.

이 작품은 비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점은 松寶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면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가정과 사회와 시대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가정에서는 우선 아버지 松學士의 엉뚱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송보주가 아들일 거라 기대했다가 아니게 되자 그것을 진짜로 만들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일을 벌인 것이었다. 송보주는 자신의 의지대로 남장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을 이끌 장성한 아들이 없는 관계로 언니 松寶林도 그녀에게 계속하여 남장을 하여 집안을 일으키도록 요구했다. 남장이라는 장치는 송보주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아울러 그녀의 비극이 시작된 요인이기도 했다.

두 번째 비극은 사회제도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사회는 여성이 바깥출입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였고 특히 전족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松寶珠도 결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반항이나 비판도 하지 못하고 순응한다. 송보주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기존 사회질서에 전혀 저항하지도 못하는 유순한 여성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그녀에게는 비극이었다. 결국 사회제도는 여성의 발을 옥죄는 전족과 똑같은 장치였고 여성은 사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가정으로만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松寶珠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성들만이 관직을 받고 전쟁에 나가던 때였다. 그러한 세상에서 송보주가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을 구제했다는 사실은 그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송보주가 행복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죽을 때까지 지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은 환상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木蘭과 같은 여성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목란 자신이 자원했던 일이고 송보주는 자신이 자발적인 의지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송보주는 당시 男性爲主의 시대적 상황과 완전히 배치되는 여성이었으므로 비극적인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蘭花夢奇傳』은 전반적으로 비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희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어 기존의 고전소설과는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난화몽기전, 송보주, 비극, 남장, 여성 영웅

❖ 參 考 文 獻

-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0. 6.
- 전용문, 『한국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학교출판부, 1996.
- 김주연, 『한국 비극소설론』, 국학자료원, 2002.
- Aristotle,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1977.
- 吟梅山人 著, 『蘭花夢奇傳』, 華夏出版社, 1995.
- 郭遠慶, 「一部反夫權的傑作—讀晚清小說『蘭花夢奇傳』」, 『科學之友(上旬)』, 2010.7.
- 王穎, 「對“英雄兒女”模式的翻案—論『蘭花夢奇傳』的混類現象和文本對話」, 『海南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6. 5.
- 胡足鳳, 「“中國娜拉”們的出路—『蘭花夢奇傳』關於女性解放的思考」, 『廣西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 4.
- 劉相雨, 「走出大觀園的“探春”—論『蘭花夢奇傳』中的松寶珠形象」, 『阜陽師範學院學報(社科版)』, 2001. 3.
- 聞今, 「一部頗具特色的『紅樓夢』仿書—『蘭花夢奇傳』校點後記」, 『紅樓夢學刊』, 1990. 2.
- 于平, 「網未破 魚先死—漫談『蘭花夢奇傳』的悲劇性」, 『明清小說研究』, 1989. 2.
- 金慧子, 「『洪桂月傳』與『蘭花夢奇傳』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論文, 2010. 3.
- 林綠峯, 「『蘭花夢』中女性形象及女性意識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論文, 2010. 3.
- 李雨, 「『蘭花夢奇傳』研究」, 山東大學 碩士論文, 2007. 9.

❖ ABSTRACT

Orchid Dream Wonderful Biography(蘭花夢奇傳)'s heroine and tragic characteristics.

Kim, Myung-sin

Orchid Dream Wonderful Biography(蘭花夢奇傳), whose author was Yinmeishanren(吟梅山人), is a Xia-Yi-Ai-Qing(俠義愛情) novel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work published in 1905 when Emperor Guangxu(光緒) governed China. The novel was reprinted for several times to its excellent art feature as well as its public praise.

Orchid Dream Wonderful Biography narratives the life story of the heroin, Songbaozhu(松寶珠). Songbaozhu disguises herself as a man, takes the imperial examination, and takes part in the war. However, she is abused after marrying Xuwenqing(許文卿), finally, she dies in misery. Songbaozhu's tragic fate show that although a woman may disguise as a man and makes great contributions in novel, it would never come true in reality.

Songbaolin(松寶林) is also home to female hero. She has a younger brother and sister were strictly education. She is a female hero of the pitch. The writer creates her, had to satisfy a social reality male.

Orchid Dream Wonderful Biography, this work has had a tragic or a reality. This work represents the limits of consciousness and the writers. *Orchid Dream Wonderful Biography* did not transcend male-oriented notions.

Key Words

Orchid Dream Wonderful Biography, Songbaozhu, tragic, disguise, heroin

248 비교문화연구 제26집 (2012. 3.)

논문접수일: 2012. 02. 10.

심사완료일: 2012. 02. 27.

게재확정일: 2012. 03. 16.